



증례 V-1

상악무치악에서의 Implant-supported overdenture 수복증례

황수영*, 황정원, 신상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산병원 치과학교실 보철과

총의치에서 골흡수가 진행되어 의치유지에 문제가 되는 현상은 상악보다 하악에서 흔히 있다. 그러나, 오랜기간의 무치악 상태와 잘 맞지않는 의치의 장기간 사용으로 골흡수가 심하게 진행된 상악의 경우도 유지력 문제로 저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상악의 임프란트지지 overdenture의 수복시 하악과의 차이점은 임프란트 식립에 있어 골의 양뿐 아니라 골질자체도 불리하여 흔히 임프란트의 식립갯수가 더 많이 요구된다.

주된 적응증은 의치 유지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고정성 임프란트로 수복하기에는 위생관리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환자, 악간관계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심미, 발음문제의 회복을 위한 경우이다.

본 증례는 임프란트를 이용한 overdenture로 수복하였다.

이에 상악에 ITI implant를 식립하고 SynOcta abutment system을 이용, 4개의 임프란트는 round bar로 연결하였다. SynOcta system은 abutment를 구강내 연결하지 않고 fixture level에서 인상을 채득한다는 점에서 임프란트 식립에서 보철과정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위의 방법과 같이 임프란트지지 overdenture증례에서 보철시술과정을 간편화시키는 일련의 임상시술 과정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치료결과, 환자는 호소하였던 저작기능 문제에 대해 아주 만족스러워 하였다.

Oral Presentation